

# '나눔의 집' 할머니들 나라사랑 캠페인 나서

###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광주서



◇지난 4월 13일 대구 패션몰 베네시움 앞에서 열린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라사랑 캠페인'의 거리 풍물공연 모습.

"우리가 단지 배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해요" (박옥련, 84)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공동체 '나눔의 집(원장 능랑)' 할머니들이 손수 그린 그림과 관련 사진을 들고 '나라사랑 캠페인'에 나섰다. 일반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기금 마련

을 위해 벌이는 이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전주를 시작으로 4월 대구를 거쳐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서 펼쳐진다.

캠페인은 거리 사진전과 그림전, 할머니들의 강연회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을 무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 '낮은 목소리' 상영, 풍물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진다. 일일차집에서는 위안부 문제 사회 촉구 및 일본의 역사 왜곡

곡반대 서명운동과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 행사도 겸한다.

능랑 스님은 "처음엔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전국 순회를 기획했지만 위안부 피해에 관한 산 역사전달을 위해서 캠페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개원 4년째인 '나눔의 집'은 현재 생존해 있는 전국 13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실 '나눔의 집

## '실천하는 불교·행동하는 여성' 세미나

###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돌기념 11월 26일

#### 세미나 후 기념법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재)이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한국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실천하는 불교, 행동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혜숙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가 '여성 불자의 정체성

에 대한 소고'를, 방송작가 이운수 씨가 '불교여성운동의 흐름'을,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이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써는 해원 스님(동국대 교수)과 이현옥(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박수호(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씨가 참석한다.

세미나 후 5시 30분부터는 창립 2주년 기념법회가 열린다. (02)722-2101

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인 이들 할머니들은 대부분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 때문에 전문 요양원을 지어 할머니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모시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5천만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양원을 건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주제로 열리는 제3차 '나라사랑 캠페인'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진다. 29일 광주 무각사를 시작으로 30일 정광고등학교 법당, 11월 1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백홀에서 강연회가 열린다. 11월 2일에는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이 무각사에서 열리고, 오전 10시 무각사에서 열리는 '조국평화를 기원하는 특별법

##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 사과 받아내야'

### 거리 그림전·일일차집... 요양원 기금 마련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개관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로부터의 성의 있는 답변과 사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날로 쇠약해져가는 할머니들의 건강 때문에 조금만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요양원 건립을 위해 할머니들과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인권 보호와 나라사랑'을

회에서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이 법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백홀에서 열리는 그림전시회에는 김순숙 할머니의 '순정', '꽃다 핀 꽃'을 비롯해 3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03)1768-0064

여수형 기자 snyopy@buddhanews.com

## 모과·유자차 만들기 좋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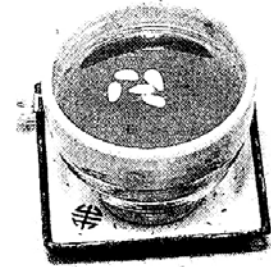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나게 만드는 때다. 요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철 과일로 겨울 내내 마실 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칼슘과 칼륨, 무기질이 풍부한 모과차는 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온몸이 나른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좋다. 또 모과의 신맛은 사과산을 비롯한 유기산으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그밖에도 신경통, 요통, 근육경련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다.

비타민C가 레몬의 세배나 들어있는 유자는 겨울철 복병인 감기에 특히 좋다. 유자의 신맛은 속 차진 몸과 정신을 맑게 해 준다. 변비에는 유자껍질까지 먹어야 효과가 있다.

## 모과차 칼슘·무기질 풍부... 피로회복에 효과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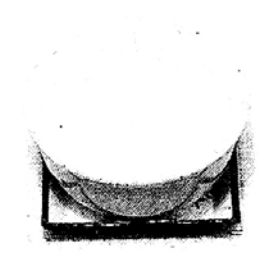
### 모과3개, 설탕2컵



1 모과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4등분 해 씨를 빼고 약 2mm 두께로 썬다.  
2 썰어놓은 모과와 설탕을 번갈아 담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5-7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보통 설사, 이질 등에는 생강즙을 한 숟가락씩 더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유자차 비타민C 듬뿍... 감기에 좋고 정신 맑게 해

### 유자10개, 설탕3컵, 설탕시럽



1 유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잘 뺀다.  
2 유자를 4등분 해 속알맹이를 떠낸 후 따로 분리해 놓고 씨는 빼 버린다. 껍질은 가능하게 채 썬다.  
3 유자 속과 껍질은 따로 그릇에 담아 설탕 1컵 반씩 넣어 버무린다.  
4 병에 3을 각각 골러 담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 산초장아찌

산초 600g, 진간장 3컵, 집간장 1컵, 소주 약간

1. 산초는 파랗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을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다.
2. 산초를 스테인리스 스틸 그



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6-7시간 정도 담갔다 찬물에 행궈 건져둔다. 이때 향이 너무 강하면 중간에 물을 갈아준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 면 산초 특유의 아삭한 맛이 사라진다.

3. 진간장과 집간장을 섞어 끓였다가 식힌 후 산초가 잠길 정도로 붓는다.
4. 5-7일 정도 묵힌 후 간장은 따라낸다. 간장에 물을 조금 붓고 다시 끓여 식힌 다음 소주를 섞어 산초에 다시 붓고 한 달 정도 묵힌다. 장아찌는 먹을 때 조금씩 꺼내 건지가 촉촉히 잠길 정도로 제 간장을 부어낸다.

## 그늘음·냄새없어 실내 정화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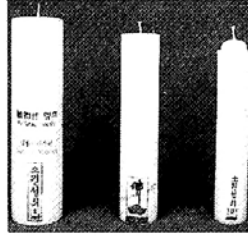
### 식물성 양초

아지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왁스와 일반 양초 성분인 파라핀 왁스를 혼합해 만든 식물성

###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양초는 탈 때 그늘음과 냄새가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또 연소 시간이 일반 양초보다 약 20~30% 정도 길다. 값은 크기에 따라 700원, 2600원, 4800원.



## 건강단신

### 노인 300명 무료 건강검진

### 30일 은평노인복지관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30일 오후 1시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일반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기초검사를 비롯해 소변 및 혈액 검사, 간기능, 당뇨병, B형간염 검사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도 실시한다. (02)2601-7161

## 연령별 소아 건강진단

서울 삼성제일병원은 생후 9개월부터 3세까지의 유아건강, 취학 전 소아를 위한 소아건강, 초등학교를 위한 소아건강, 중고등학교를 위한 청소년건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전화나 팩스로 3일 전에 해야 한다. (02)2000-7200 팩스 (02)2000-7000

## 매주 목요일 당뇨교실

서울 중구청은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무료 당뇨교실을 연다. (02)2230-4404

#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역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식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지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인지
  - 선행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뱉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국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자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힐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 등등 인간사의 모든 갈홍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육임 신수비결 (身數秘訣)

찾아온 시간이나 떠난 알면 해당국수가 나타나 그 날 그 국수를 펼치면, 1년의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정사형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250,000원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학박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지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환인천역(天人天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미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말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임신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배에 임신 가솔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환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무거운 것이 아니라(妙妙)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談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역신판 W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역신판 W1,300,000 (좌정용)
- 호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사속」 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